

정원 유적

庭園跡

Ruins of the Garden

庭園遺址

庭園遺址

메이지 5(1872)년 메이지 천황이 가고시마에 행차했을 때 동행한 사진가 우치다 구이치가 가고시마(쓰루마루) 성 안팎을 촬영했습니다. 성안을 촬영한 사진 중에는 정원을 찍은 사진이 있어 안쪽 서원의 모습과 함께 연못이나 폭포, 조경석 등이 배치된 단정한 정원의 모습을 오늘에 전하고 있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조경석이나 옥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진에 찍힌 정원의 일부가 땅속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가고시마(쓰루마루) 성의 정원을 구성하고 있던 석재는 쇼와 초에 구제 제7 고등학교의 수영장 건설을 위해 가고시마시의 공회당(현재의 중앙공민관)과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동물원의 정원으로 이설되었습니다. 그 후, 가모이케 동물원에 옮겨진 석재는 가고시마현역사자료센터 레이메이칸의 개관에 맞추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성산 산책길 근처의 연못에 설치되었습니다.



메이지 5(1872)년의 정원 (연못에서 사기의 방 · 기린의 방을 바라보다)



메이지 5(1872)년의 정원 (사기의 방에서 정원을 바라보다)